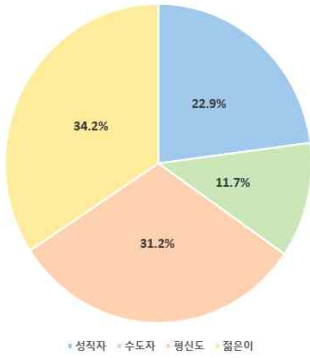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 '친교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설문조사 보고서

◆ 전체 응답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젊은이		전 체	
53명	22.9%	27명	11.7%	72명	31.2%	79명	34.2%	231명	100%

사목기획실에서는 2023년 상반기 '친교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현황 파악을 위하여 본당 주임 사제, 본당 대표 전교 수녀, 본당 회장 및 제단체장, 본당 교리교사 대표, 본당 청년회장, 가톨릭 학생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Google Forms]로 작성된 설문조사 양식을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지난 8월 2일(수)에 시작된 해당 설문조사는 8월 25일(금)에 마감되었으며, **성직자 53명 (22.9%), 수도자 27명 (11.7%), 평신도 72명 (31.2%), 젊은이 79명 (34.2%), 총 23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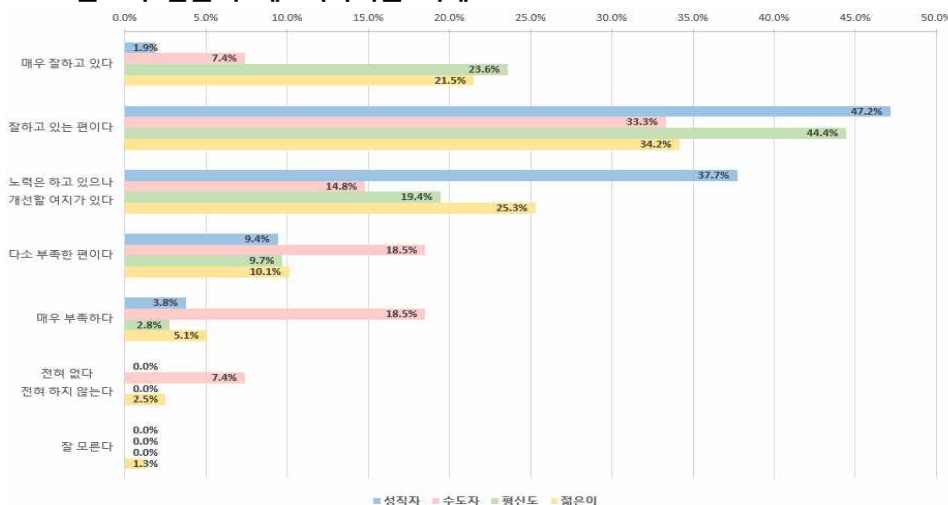
1. '친교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먼저,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대상자들이 올해의 사목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일곱 가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사항에 체크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본당 신부, 수도자, 신자들은 올해 사목지침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
- ② 본당 신자들은 왜 '친교'와 '말씀'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
- ③ 사목지침 실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당 신부, 수도자, 신자들이 함께 논의한다.
- ④ 본당 신자들은 사목지침에 따른 본당 실천 사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⑤ 본당 신부는 사목지침에 따른 본당 실천 사항의 진행 과정을 본당 신자들과 공유한다.
- ⑥ 사목지침 취지에 따른 본당의 변화를 체감한다.
- ⑦ "친교"와 "말씀" 중 특정 한 부분의 실천 사항에 기울지 않고 고루 실천하고 있다.

1-1. '친교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이해



[그래프1] '친교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이해

위의 사례를 근거로 대부분 실천하고 있으면 “매우 잘하고 있다”에,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없다/ 전혀 하지 않는다.”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에 평신도(23.6%)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잘하고 있는 편이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개선할 여지가 있다”에 성직자 비중이 각 47.2%와 37.7%로 가장 높았다. “다소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전혀 없다/ 잘 모른다”와 같은 의견은 수도자가 각 18.5%, 18.5%, 7.4%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설문 참여자의 전체 응답에서는 “잘하고 있는 편이다”가 40.3%로 가장 높았고, 전체 긍정 답변이 81.4%라는 결과를 보았을 때 ‘친교와 말씀의 해’가 각 본당과 단체에서 잘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비대면 시기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본당에서의 활동과 그 효과

1-2-1. 성직자 - 본당 주임 사제

- **(전례)** SNS, 유튜브,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매일 미사, 강론 또는 본당 소식을 공유하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미사 참례를 강조함.
- **(개인신심활동)** 성경 필사(또는 모바일 성경 쓰기), 성경 통독, 성경 구절 외우기 등을 통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체조배나 묵주기도 등의 개인 신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함.
- **(교육/특강)** 성경특강 및 신심 세미나, 신영세자 후속 교육, ZOOM을 통한 예비자 교리 등을 실시하고 미사 전 시청각 교육 자료를 상영함.

1-2-2. 수도자 - 전교수녀

- **(전례)** 미사 참여를 독려하고, 미사 전 독서와 복음을 읽고 전례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개인신심활동)**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회칙 『찬미받으소서』 읽기를 권장함.
- **(교육/특강)**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은빛성경교육을 실시함.
- **(방문)** 1인 가구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봉성체 해드림.
- **(회의적의견)** 신자들이 편안함에만 안주하여 전례 및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진 듯한 느낌을 받음. 노력에 비해 신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효과가 없음.

1-2-3. 평신도 - 본당 회장, 제단체장

- **(전례)** SNS, 유튜브,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매일 미사에 참례함.
- **(개인신심활동)** 성경 필사(또는 모바일 성경 쓰기), 성경 통독, 성경 구절 외우기,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매일 독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거나 묵주기도를 생활화함.
- **(교육/특강)** 비대면 성경 공부(가톨릭 성서모임, 유튜브), 가톨릭 영상교리 등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모임)** SNS를 통하여 매일 평의회 및 주회, 레지오 활동에 참함.
- **(선교활동)** 성당 주변 지역 및 골목을 청소하고 불우한 이웃돕기(옷, 현금, 음식 나누기 등)를 실시함.

1-2-4. 젊은이 -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대학생)

- **(전례)** SNS, 유튜브,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매일 미사에 참례함.
- **(개인신심활동)** 성경 필사(또는 모바일 성경 쓰기), 성경 통독, 성경 구절 외우기,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매일 독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거나 묵주기도/화살기도를 생활화함. 가정별 또는 개인별로 성지 순례함. 가톨릭성가 또는 생활성가를 듣거나 연주하면서 묵상함.
- **(교육/특강)** 비대면 성경 공부(아르카 청년성서모임, 유튜브), 가톨릭 영상교리 등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모임)** 주일학교 활성화 및 청년 활동에 힘씀.
- **(친교/선교활동)** SNS를 통해 쉬는 교우에게 안부를 전달하거나 본당 홍보 및 안내(미사 안내, 말씀 공유 등)를 위해 노력함. '유스워크' 등 신앙 자료를 전해줌.

■ [종합] 1-2

비대면 시기에 신앙 유지를 위해 전반적으로 영상매체 통한 미사 참례와 SNS를 통해 교우들 간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고, 성경필사 및 통독 등의 개인 신심활동을 주로 실천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평신도의 경우 비대면 시기에 성당 주변 지역 및 골목 청소와 불우한 이웃돕기 등 선교활동을 실천해 온 반면, 수도자의 경우 신자들이 비대면 시기에 편안함에만 안주하여 전례 및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신앙 활동을 권장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신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효과 또한 미미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1-3. 비대면 시기를 극복하고 친교를 다시금 활성화하기 위한 본당의 활동

1-3-1. 성직자 - 본당 주임 사제

- **(행사)** 공동체 친교 식사 초대, 본당의 날 등의 본당 내 행사, 또는 성지순례 등의 야외 행사를 통해 친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함.
- **(모임정상화)** 비대면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레지오 및 제단체, 소공동체 모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함. 주일학교 재개 및 노인대학을 재정비함.
- **(쉬는교우)** 구역/반의 쉬는 교우 실태를 조사하고 권면활동을 실시함.
- **(환경)** 본당 내 영적 환경(성전 조성, 실내 성모당 설치, 성체조배, 미사 중 개인 안수 등) 조성함. 교중미사 활성화를 위해 미사 시간을 조정하고, 본당 내 명찰 달기 및 인사 나누기 등을 실시함.

1-3-2. 수도자 - 전교수녀

- **(행사)** 공동체 친교 식사 초대, 본당의 날, 음악회 등의 본당 내 행사, 또는 성지순례 등의 야외 행사를 통해 친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함.
- **(모임정상화)** 비대면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레지오 및 제단체, 소공동체 모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함. 주일학교 재개 및 노인대학을 재정비함.
- **(교육)** 은빛성경교육을 포함하여 성경 교육을 실시함.

- **(쉬는교우)** 쉬는 교우 가정 또는 환우 가정방문 등을 실시함.
- **(환경)** 교우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친절한 말 건네기를 실시함.

1-3-3. 평신도 - 본당 회장, 제단체장

- **(전례)** 매일 미사 또는 주일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행사)** 공동체 친교 식사 초대, 본당의 날, 음악회 등의 본당 내 행사, 또는 성지순례 등의 야외 행사를 통해 친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함. 교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함.
- **(모임정상화)** 비대면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레지오 및 제단체, 소공동체 모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함. 노인대학을 재개하여 어르신들 간의 친교를 도모함.
- **(교육)** 본당에서 실시하는 성경 교육에 참여함.
- **(환경)** 본당 내 명찰 달기, 교우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친절한 말 건네기를 실시함. 쉬는 교우 가정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교에 힘쓰거나 이웃의 환자 돌아보기를 실천하고 있음.

1-3-4. 젊은이 -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대학생)

- **(전례)** 청년미사 또는 주일학교 미사 시 새로운 미사곡 도입, 밴드 활성화 등으로 미사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
- **(행사)** 본당 행사 및 교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회 식사 및 MT 등을 통해 친교를 활성화하고 있음.
- **(모임정상화)** 청년회와 가톨릭학생회 활성화 및 회원 모집을 위해 노력함. 청년회 커리큘럼 (1주 월례회, 2주 교리, 3주 나눔, 4주 회식)을 만들어 운용함.
- **(주일학교)** 주일학교 재개 및 활성화, 행사 개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과 친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 주일학교 교사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함.
- **(쉬는교우)** 냉담 중인 친구, 가족, 교우들에게 강론 말씀, 유스위크 등 영적 자료를 공유하고 독려함.

■ [종합] 1-3.

비대면 시기를 극복하고 친교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당에서는 주로 **친교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단체 모임을 활성화**와 **본당 내 여러 행사**를 주최하면서 본당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 '친교와 말씀의 해' 실천사항

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 대상자들이 올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친교와 말씀의 해' 실천사항을 본당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당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1. 하느님과의 친교

2-1-1.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기에 신자들이 참여 유도 및 호응

문 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 체
성직자	6	21	17	7	2	0	53
	11.3%	39.6%	32.1%	13.2%	3.8%	0.0%	100.0%
수도자	4	5	9	6	3	0	27
	14.8%	18.5%	33.3%	22.2%	11.1%	0.0%	100.0%
평신도	14	26	22	9	1	0	72
	19.4%	36.1%	30.6%	12.5%	1.4%	0.0%	100.0%
젊은이	8	19	26	19	4	3	79
	10.1%	24.1%	32.9%	24.1%	5.1%	3.8%	100.0%
전 체	32	71	74	41	10	3	231
	13.9%	30.7%	32.0%	17.7%	4.3%	1.3%	100.0%

[표1]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기 참여 및 반응

올해의 사목지침 실천사항의 첫 번째로 【매주 주보에 게재되는 '성경구절 외우고 묵상하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물음을 제시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성직자 39.6%와 평신도 36.1%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수도자 33.3% 와 젊은이 32.9%가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였다.

2-1-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례 참여자 수 증가

문 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 체
성직자	11	31	9	2	0	0	53
	20.8%	58.5%	17.0%	3.8%	0.0%	0.0%	100.0%
수도자	5	8	11	2	1	0	27
	18.5%	29.6%	40.7%	7.4%	3.7%	0.0%	100.0%
평신도	16	40	15	1	0	0	72
	22.2%	55.6%	20.8%	1.4%	0.0%	0.0%	100.0%
젊은이	19	30	13	14	3	0	79
	24.1%	38.0%	16.5%	17.7%	3.8%	0.0%	100.0%
전 체	51	109	48	19	4	0	231
	22.1%	47.2%	20.8%	8.2%	1.7%	0.0%	100.0%

[표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례 참여자 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사 전례 참여자 수가 늘었고, 미사 준비에도 적극적이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성직자 58.5%, 평신도 55.6% , 젊은이 38.0%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수도자 33.3%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해당 설문의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로 돌아오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3. 창세기와 탈출기 필사하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3	16	24	9	1	0	53
	5.7%	30.2%	45.3%	17.0%	1.9%	0.0%	100.0%
수도자	3	5	7	9	1	2	27
	11.1%	18.5%	25.9%	33.3%	3.7%	7.4%	100.0%
평신도	7	15	34	12	2	2	72
	9.7%	20.8%	47.2%	16.7%	2.8%	2.8%	100.0%
젊은이	8	13	24	21	9	4	79
	10.1%	16.5%	30.4%	26.6%	11.4%	5.1%	100.0%
전체	21	49	89	51	13	8	231
	9.1%	21.2%	38.5%	22.1%	5.6%	3.5%	100.0%

[표3] 창세기와 탈출기 필사하기 참여도

【‘창세기와 탈출기 필사하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직자 45.3%, 평신도 47.2%, 젊은이 30.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수도자 33.3%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만 보면 긍정적인 응답만 한 것은 아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성경 필사임을 감안하였을 때 교구 내 많은 신자가 창세기와 탈출기 필사하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1-4. 1주에 30분 이상 성체조배 하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3	13	23	13	1	0	53
	5.7%	24.5%	43.4%	24.5%	1.9%	0.0%	100.0%
수도자	4	7	7	7	2	0	27
	14.8%	25.9%	25.9%	25.9%	7.4%	0.0%	100.0%
평신도	3	24	32	10	1	2	72
	4.2%	33.3%	44.4%	13.9%	1.4%	2.8%	100.0%
젊은이	4	10	26	30	7	2	79
	5.1%	12.7%	32.9%	38.0%	8.9%	2.5%	100.0%
전체	14	54	88	60	11	4	231
	6.1%	23.4%	38.1%	26.0%	4.8%	1.7%	100.0%

[표4] 1주에 30분 이상 성체조배하기 참여도

【‘1주에 30분 이상 성체조배 하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직자 43.4%, 평신도 44.4%,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젊은이 38.0%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수도자의 경우 “그렇다”(25.9%), “보통이다”(25.9%), “아니다”(25.9%)라는 답변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해당 질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젊은이의 경우, 성체조배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들에게 있어 성체조배가 어떻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 [종합] 2-1.

사목지침 실천사항 ‘하느님과의 친교’ 부분에서는 매주 주보에 게재되는 성경구절 외우고 묵상하기에 많은 신자가 참여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전례 참여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수도자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와 탈출기 필사하기와 1주에 30분 이상 성체조배 하기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 그들에게 성경필사와 성체조배가 어떻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이웃과 친교

2-2-1. 신자들 간에 먼저 인사하기가 잘 시행되고 있음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5	24	20	4	0	0	53
	9.4%	45.3%	37.7%	7.5%	0.0%	0.0%	100.0%
수도자	3	11	11	1	0	1	27
	11.1%	40.7%	40.7%	3.7%	0.0%	3.7%	100.0%
평신도	13	39	16	4	0	0	72
	18.1%	54.2%	22.2%	5.6%	0.0%	0.0%	100.0%
젊은이	24	32	15	7	1	0	79
	30.4%	40.5%	19.0%	8.9%	1.3%	0.0%	100.0%
전체	45	106	62	16	1	1	231
	19.5%	45.9%	26.8%	6.9%	0.4%	0.4%	100.0%

[표5] 신자들 간에 먼저 인사하기 참여도

실천사항 ‘이웃과 친교’ 문항에서 【신자들 간에 먼저 인사하기가 잘 시행되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직자 45.3%, 수도자 40.7%, 평신도 54.2%, 젊은이 40.5%로 설문 참여자 모두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자들 간의 친교와 교류가 어려웠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을 보인다.

2-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쉬는 교우 분당 초대 노력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6	30	16	1	0	0	53
	11.3%	56.6%	30.2%	1.9%	0.0%	0.0%	100.0%
수도자	5	7	9	4	2	0	27
	18.5%	25.9%	33.3%	14.8%	7.4%	0.0%	100.0%
평신도	10	37	22	1	2	0	72
	13.9%	51.4%	30.6%	1.4%	2.8%	0.0%	100.0%
젊은이	21	32	18	3	3	2	79
	26.6%	40.5%	22.8%	3.8%	3.8%	2.5%	100.0%
전체	42	106	65	9	7	2	231
	18.2%	45.9%	28.1%	3.9%	3.0%	0.9%	100.0%

[표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쉬는 교우 분당 초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쉬는 교우를 다시 초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직자 56.6%, 평신도 51.4%, 젊은이 40.5%가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수도자 33.3%가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사 전례 참여 등이 제한되어 쉬는 교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들을 다시금 공동체로 초대하기 위한 교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2-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공동체 및 제단체 활성화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8	24	15	6	0	0	53
	15.1%	45.3%	28.3%	11.3%	0.0%	0.0%	100.0%
수도자	3	12	9	3	0	0	27
	11.1%	44.4%	33.3%	11.1%	0.0%	0.0%	100.0%
평신도	14	40	18	0	0	0	72
	19.4%	55.6%	25.0%	0.0%	0.0%	0.0%	100.0%
젊은이	25	34	17	3	0	0	79
	31.6%	43.0%	21.5%	3.8%	0.0%	0.0%	100.0%
전체	50	110	59	12	0	0	231
	21.6%	47.6%	25.5%	5.2%	0.0%	0.0%	100.0%

[표7]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공동체 및 제단체 활성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외 제단체 모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직자 45.3%, 수도자 44.4%, 평신도 55.6%, 젊은이 43.0%로 설문 참여자 모두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당 및 제단체에서는 교회의 침체된 친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임의 재개 및 활성화를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4. 단체 또는 개인 차원의 자선 활동 노력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7	26	19	1	0	0	53
	13.2%	49.1%	35.8%	1.9%	0.0%	0.0%	100.0%
수도자	4	11	11	1	0	0	27
	14.8%	40.7%	40.7%	3.7%	0.0%	0.0%	100.0%
평신도	10	29	26	7	0	0	72
	13.9%	40.3%	36.1%	9.7%	0.0%	0.0%	100.0%
젊은이	14	33	22	7	2	1	79
	17.7%	41.8%	27.8%	8.9%	2.5%	1.3%	100.0%
전체	35	99	78	16	2	1	231
	15.2%	42.9%	33.8%	6.9%	0.9%	0.4%	100.0%

[표8] 단체 또는 개인 차원의 자선 활동 노력

【단체 또는 개인 차원에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자선 활동에 힘쓰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직자 49.1%, 수도자 40.7%, 평신도 40.3%, 젊은이 41.8%로 설문 참여자 모두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본당 및 제단체 모임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종합] 2-2

사목지침 실천사항 ‘이웃과 친교’ 부분에서는 문항마다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1-3. 비대면 시기를 극복하고 친교를 다시금 활성화하기 위한 본당의 활동]의 설문 답변과 [2-2. 이웃과 친교] 부분의 설문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당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과 노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문 통계상 수도자의 경우에는 다른 이들과 달리 친교의 활성화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2-3. 세상과 친교

2-3-1. 6R 탄소단식 챌린지 적극 홍보 및 많은 신자가 참여하고 있음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합계
성직자	4	10	29	9	1	0	53
	7.5%	18.9%	54.7%	17.0%	1.9%	0.0%	100.0%
수도자	2	12	8	5	0	0	27
	7.4%	44.4%	29.6%	18.5%	0.0%	0.0%	100.0%
평신도	15	41	15	1	0	0	72
	20.8%	56.9%	20.8%	1.4%	0.0%	0.0%	100.0%
젊은이	12	24	25	12	2	4	79
	15.2%	30.4%	31.6%	15.2%	2.5%	5.1%	100.0%
합계	33	87	77	27	3	4	231
	14.3%	37.7%	33.3%	11.7%	1.3%	1.7%	100.0%

[표9] 6R 탄소단식 챌린지 홍보 및 신자 참여도

실천사항 ‘세상과 친교’ 문항에서 【교구 『6R 탄소단식 챌린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고, 많은 신자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수도자 44.4%, 평신도 56.9%가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성직자 54.7%, 젊은이 31.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전체 응답에서는 긍정 답변이 85.3%이므로 6R 탄소단식 챌린지에 교구 내 모든 이가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재활용,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4	18	28	3	0	0	53
	7.5%	34.0%	52.8%	5.7%	0.0%	0.0%	100.0%
수도자	1	12	9	4	0	1	27
	3.7%	44.4%	33.3%	14.8%	0.0%	3.7%	100.0%
평신도	15	46	9	2	0	0	72
	20.8%	63.9%	12.5%	2.8%	0.0%	0.0%	100.0%
젊은이	16	26	22	11	1	3	79
	20.3%	32.9%	27.8%	13.9%	1.3%	3.8%	100.0%
전체	36	102	68	20	1	4	231
	15.6%	44.2%	29.4%	8.7%	0.4%	1.7%	100.0%

[표10] 재활용,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

【『6R 탄소단식 챌린지』나 『찬미반으소서』의 지속적 실천으로 인해 재활용,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수도자 44.4%, 평신도 63.9%, 젊은이 32.9%가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성직자 52.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2-3-3.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7	11	20	15	0	0	53
	13.2%	20.8%	37.7%	28.3%	0.0%	0.0%	100.0%
수도자	1	4	8	13	0	1	27
	3.7%	14.8%	29.6%	48.1%	0.0%	3.7%	100.0%
평신도	13	21	27	9	2	0	72
	18.1%	29.2%	37.5%	12.5%	2.8%	0.0%	100.0%
젊은이	4	19	19	29	5	3	79
	5.1%	24.1%	24.1%	36.7%	6.3%	3.8%	100.0%
전체	25	55	74	66	7	4	231
	10.8%	23.8%	32.0%	28.6%	3.0%	1.7%	100.0%

[표11]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지구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직자 37.7%, 평신도 37.5%가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수도자 48.1%, 젊은이 36.7%가 “아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미사 전/후로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도에 대한 홍보나 기도문 배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2-4-1.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를 위한 기도’를 바치기】의 결과와 같이, 신자들이 ‘젊은이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 2-3.

사목지침 실천사항 ‘세상과 친교’ 부분에서는 [6R 탄소단식 챌린지 홍보 및 참여]와 [재활용,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교구 내에서 적극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는 참여도가 저조했다. 위의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당 및 신자 개인이 [젊은이를 위한 기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가 다소 소홀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도에 대한 홍보 및 기도문 배부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2-4. 청소년·청년의 해 준비

2-4-1.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를 위한 기도 바치기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28	18	6	1	0	0	53
	52.8%	34.0%	11.3%	1.9%	0.0%	0.0%	100.0%
수도자	18	8	1	0	0	0	27
	66.7%	29.6%	3.7%	0.0%	0.0%	0.0%	100.0%
평신도	32	25	10	4	1	0	72
	44.4%	34.7%	13.9%	5.6%	1.4%	0.0%	100.0%
젊은이	39	21	5	12	2	0	79
	49.4%	26.6%	6.3%	15.2%	2.5%	0.0%	100.0%
전체	117	72	22	17	3	0	231
	50.6%	31.2%	9.5%	7.4%	1.3%	0.0%	100.0%

[표12]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를 위한 기도 바치기

실천사항 ‘청소년의 해 준비’ 문항에서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다.】라는 물음에 성직자 52.8%, 수도자 66.7%, 평신도 44.4%, 젊은이 49.4%로 설문 참여자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각 본당과 수도회, 제단체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길 기도하고 내년에 있을 “청소년·청년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2. 젊은이를 초대하기 위한 노력, 젊은이 미사 참여자 수 증가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잘모른다	전체
성직자	4	17	20	11	1	0	53
	7.5%	32.1%	37.7%	20.8%	1.9%	0.0%	100.0%
수도자	1	13	8	3	2	0	27
	3.7%	48.1%	29.6%	11.1%	7.4%	0.0%	100.0%
평신도	10	23	29	8	1	1	72
	13.9%	31.9%	40.3%	11.1%	1.4%	1.4%	100.0%
젊은이	15	26	18	17	3	0	79
	19.0%	32.9%	22.8%	21.5%	3.8%	0.0%	100.0%
전체	30	79	75	39	7	1	231
	13.0%	34.2%	32.5%	16.9%	3.0%	0.4%	100.0%

[표13] 젊은이 초대 노력 및 젊은이 미사 참여자 수 증가

【젊은이를 초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젊은이 수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수도자 48.1%, 젊은이 32.9%가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성직자 37.7%, 평신도 40.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젊은이의 미사 참여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기성세대가 체감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종합] 2-4.

사목지침 실천사항 ‘청소년·청년의 해 준비’ 부분에서는 각 문항에서 다소 엇갈린 답변이 나왔다. 위의 [종합 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사 전/후, 또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를 위한 기도 바치기]가 매우 잘 실천되고 있고, 본당에서도 높은 비중으로 미사 전후에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를 초대하기 위한 노력, 젊은이 미사 참여자 수 증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수도자와 젊은이가 청년층의 참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본당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평이하다는 관점이다. 본당 내 청년층 유입이 기성세대가 체감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5. '친교와 말씀의 해' 실천 사항 추가 의견 또는 건의 사항

2-5-1. 성직자 - 본당 주임 사제

- **(교구차원)** “청소년·청년의 해”와 관련하여 주일학교 및 청년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나 실천적 내용이 부족함.
- **(자율성)** 형식적인 사목지침 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목지침을 제시하고, 최대한 본당 사제의 자율성과 독창성 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실천사항은 본당 실정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게 여겨짐.
- **(젊은이 부족)** 청소년과 젊은이가 부족한 본당에서는 사목지침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이므로 본당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현실을 교구에서 먼저 인지해야 함.

2-5-2. 수도자 - 전교수녀

- **(적극성)** 본당의 사제들이 교구 사목지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하면 좋겠음.
- **(공지)** 본당에서 사목지침 공지만 할 것이 아니라 본당 차원에서 실천한 결과를 매달 공지했으면 함.
- **(변화)** “청소년·청년의 해”를 준비하면서 지구별 청소년 활동의 구체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교회 내 총체적인 쇄신의 바람을 함께 기대함.

2-5-3. 평신도 - 본당 회장, 제단체장

- **(교구차원)** 교구 차원에서 쉬는교우 가정을 대상으로 회두권면 운동을 시행해야 함. 현재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경 쓰기를 지속해주었으면 함. 교구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더욱 활성화해야 함.
- **(예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본당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홍보)** 본당 내 사목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쉬는교우)** 사제와 평신도가 협력하여 쉬는 교우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본당 내 크고 작은 행사를 적극 추진해야 함. 또한 쉬는 교우를 대상으로 하는 주보 및 출판물 보급이 필요함.

2-5-4. 젊은이 -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대학생)

- **(교구차원)** 교구에서 젊은이를 위한 콘텐츠나 커리큘럼을 개발해줬으면 함. 유스위크에 청년회의 활동을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음.
- **(교육)** 친교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본당 사제나 단체장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함.
- **(체계구축)** 본당 내 단체 가입 방법, 가입 연령대 등이 본당별로 상이하여 체계가 있으면 좋겠음.
- **(관심부족)** 청소년 청년에 대한 본당의 관심이 부족함. 본당 차원에서 젊은이를 초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변화)** 청년들은 한 해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담당 사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사제가 이에 맞추어 함께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음.

■ [종합] 2-5.

[친교와 말씀의 해 실천사항 추가 의견 및 건의 사항] 부분에서는 ‘청소년·청년의 해’와 관련하여 우려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교구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소년·청년의 해’와 관련하여 구체적 방향 제시나 실천적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대상자들을 위한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당의 주임 사제들은 청소년과 젊은이가 부족한 본당이 있으며 그 상황에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목지침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고, 평신도들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본당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소년, 청년은 본당 내 어른들의 관심 부족과 본당에 젊은이를 초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청년 세대의 흐름을 본당 사제가 따라가지 못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스러운 관점도 있었다.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현실과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바라는 관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